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5호 【루게 제25143호】 주제104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김양건 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2월 30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의방문에는 황병서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박범기 동지, 오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조연준 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 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일편단심 당과 혁명발전을 위하여 한생을 짊어지 마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요히 잠든 사랑하는 전우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한없이 애석해하시면서 이런 충직한 혁명 전사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김양건 동지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신의 충실한 방조자, 친근한 전우였다고, 금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다고, 함께 손잡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간다는 말도 없이 야속하게 떠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따듯이 잡아보고 보냈으면 이다지 가슴허비지는 앓겠다고 하시며 싸늘하게 식은 혁명동지의 시신에 손을 얹으시고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했던 김양건 동지의 빛나는 한생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참다운 혁명가,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자라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영원히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유일적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싸워온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김양건 동지의 령구를 돌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 동지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면서 일일이 손잡아 따듯이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김양건 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30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리영옥 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혁명투사 리영옥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9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비전향장기수들, 각계층 근로자들 고 김양건 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

【평양 12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30일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비전향장기수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진실한 혁명동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조객들은 조의식장인 서장회관을 찾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성, 중앙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고 김양건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기뻐하시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인 령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큰업무를 힘차게 내디디며 달려온 주제 104(2015)년을 돌아보아는 사람들의 감회는 참으로 깊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격동의 그 나날들은 얼마나 가슴벅찬 것인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한 올해의 승리를 우리 수령님들께서 보시었다리만 얼마나 기뻐하시라 하든 생각이 주제 104(2015)년의 마지막날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심장은 뜨겁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기뻐하시게, 이것은 온 한해동안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적이 없는 고결한 승리의 지향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답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을 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기뻐하시게, 이것은 온 한해동안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적이 없는 고결한 승리의 지향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답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을 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강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부대에 실전배비된 신형 반함선로켓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었다.

후편을 시작할 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자 순차대로 발사된 반함선로켓들이 새한 불꽃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후편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는 끓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만들이 만들어졌다.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가장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었다.

선군총대의 고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개건된 평원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것은 주제 104(2015)년 12월 어느날이었다.

백두산전설제일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와 현지지도요시비, 기관단총성능시험장, 기관단총사적지,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은 참으로 뜨거우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변불욕의 된 평원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것은 주제 104(2015)년 12월 어느날이었다.

백두산전설제일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와 현지지도요시비, 기관단총성능시험장, 기관단총사적지,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은 참으로 뜨거우시었다.

팔승의 기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한겨울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 인민군부대들사이의 훈련을 친히 보아주시는 때의 일이다.

훈련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우와 타파쳐오는 불기둥, 길은 연기속에서 치밀하게 진행되는 훈련을 보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아와 공격이 나무랄데가 없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격으로 이길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와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의 파분한 처사를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처럼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산전설제일대를 새처럼 일으켜 언제나 강위력으로 동원된 태세에서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황금해의 새 력사속에 펼쳐진 《이채어경》 그 이름도 빛나는 청년강국

『이채어경!』
이제는 이 땅의 누구에게나 귀에 익은 말이다.

병사들이 지켜선 천리방선 초소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커가는 집집마다에 사랑의 대명사로 새겨진 《이채어경》.

머지않아 울리게 될 제야의 종소리를 그려보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온 창조와 변혁의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찌하여 《이채어경》을 두고 또다시 붓을 달리는 것인가.

그것은 이 시대어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 인민들과 병사들에 대한 무한대 사랑의 세계가 비쳐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신 사업들을 충직하고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머지않아 울리게 될 제야의 종소리를 그려보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온 창조와 변혁의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찌하여 《이채어경》을 두고 또다시 붓을 달리는 것인가.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넋을 뜨겁게 불태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군대민이 가슴에 새긴 생활의 철리이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령산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1면적 라신시론포럼북구대북문제 토의하도록 하고 조국 북방방면에 진화위부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최후승리를 떨치리



이해의 마지막날이지만 올해 첫날에 있는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날전부터 1월 1일 부 《로동신문》을 남김없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니 새해의 첫날에는 더했다.

가정과 일터마다에서도 저저마다 앞다리를 앞보지 않았다고 생김이름 하며 텔레비전화면에 마주앉았다.

어른, 아이 한결없이 공장 파 농촌, 도시와 마을 그 어디에서나 새해의 첫날에는 이런 이채로운 광경을 펼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남김없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니 새해의 첫날에는 더했다.

인민의 축하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새해를 맞는 인민을 축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에서 남김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시고 원수님께 새해인사를 드리고 싶어, 간절한 마음속에 흐르는 마지막날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마시명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신 혁명활동소식을 실은 이해 첫 12월 31일부 당보를 읽지 못할것이다.

은 나라가 불똥이 인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공자, 건설자들도 제대로 타보지 못한 수순한 속도라고 산재들도 위이 날아넘기 저어하는 명정행에 오른 메가 그 언제 있었는가.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 해 봄이 날을 보아주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 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위험한 리학특시험비행을 진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한해를 이렇게 보내시었다.

혁명의 선상 백두산으로부터 동해안의 전방초소, 라신 평의 선경마을,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결사관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

황해남도물길공사에서 근 30개소의 물길굴, 잠관, 물다리 건설 완공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역사적인 당 제 7차대회전으로 1단계 물길공사를 무조건 완공할 무렵에는 애국의 마음과 총공격정신을 발휘하고있다.

종합적으로 의하면 이들은 올해에 5만 5천여m³의 물길굴 확장공사와 2만 3천여m³의 콘크리트복공사를 진행하여 13개소의 물길굴과 3개소의 물다리, 십여개소의 잠관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저수지건설장에서는 2만여m³의 연제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연제, 취수탑, 배수공사를 완공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멸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스런 로명적성과 빛내이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용주요를 맡고 우기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물길굴과 구조물공사, 흙물길건설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노력과 자력을 총집중하면서 다른 대상건설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특히 자강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건설경제공업성터전들로 강력한 전투력향을 편성하고 기동성있게 전개하여 물길공사에 일제히 돌입하고 있다.

황해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등 다른 각 지역에서도 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황해남도 물길공사와 함께 책임졌다. 높은 사명감을 안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신속하게 짜고들어 이들의 투쟁을 적극 떠맡아주었다.

또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돌격대원들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각종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물길공사를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명적성과 빛내이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을 펼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는 편일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글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공사속도를 2배로 높였다. 평안남도에서는 부단치는 예로와 난관을 파잡히 뚫고나가면서 힘찬 진투를 벌여 많은 물다리건설을 단 70여 일만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러던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물다리를 건설해본 경험도 기술도 없었지만 결사의 각오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체제와 바닥콘크리트기기를 동시에 내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내부에비를 총동원하여 기계대비를 비롯한 뒤물제작에 필요한 설비들과 파쇄기, 공기식진동타기기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천천히 책임지고 단련을 보충할 때

공을 새차에 일으켜 번대적혁신을 일으키나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이 사업을 단순히 앞서나가는 단위를 평가하고 내세우는데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시범단위를 바로 선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였다. 결과 평안에서는 총공사량의 90%계선을 돌파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분발해나선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부단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며 많은 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화학공업성, 건설경제공업성과 수매방정성, 전력공업성, 철도성,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와 순천세



함경남도려단에서



자강도려단에서

유훈관철의 길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오늘 조국밖 이르는 곳마다에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같은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온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병도 자강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빠른 것, 기능성, 단련성, 내구성이 여러가지 전자의료설비들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전인 2011년 10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심전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연구개발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어린 과업을 받아안았다.

지난 수년동안 멘트젠생산을 전문으로 해온 이들로서는 여러 전문분야의 앞선 기술을 전제로 하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에 대한 과업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사회주의보전제도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무들, 대답해 보시오. 인공기구위생을 만들어 낸 우리 나라에서 그만한 의료설비 하나 내놓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로부터 몇달이 흘렀다. 그 나날 예상치 않았던 시련에 부딪쳐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선다는 과업이 그것이었었다.

여러번의 실패를 거듭하자 우리의 기술로써는 어렵지 않더라도 나라의것을 수입하자고 권유하는 목소리들이 차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공장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보전제도의 수백명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에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열렬히 토로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맡아 해결해주었다.

이런 적극적인 방조와 지지속에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느 한 단위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뇌과제 작업을 제기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다음인 2013년에 뇌과제, 근전계, 심전계, 복부초음파진단기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꾸리느라 힘겨운 전투를 벌이던 이 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업이

앞서 있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수백종의 부속품들을 수입해놓고도 조립기술이 부족하여 해당 제조회사들에서 오래동안 배우고 서야 생산을 시작한다는 전자위생기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 설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리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보전성 건강학작업의 기술자들과 함께 전자위생기구제작을 위한 연구사들에게 주저없이 뛰어넘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전자위생기구들을 수백종에 달하는 부속품들의 기술적특성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자체로 생산한 부속품들로 조립하기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다진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년동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배수침대의 심전계와 수침대의 뇌과제, 근전계, 복부초음파진단기를 제작하여 전국의 보건기관들에 보내주었다.

오늘도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길에 공장의 매일과 더불어 세상에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전제도를 더욱 빛내이는 길이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더 좋은 의료설비제작을 위해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자 한다.

본사기자 방경찬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지척

평양기료품공장에서

얼마전 평양기료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유언장대적기의 혁신부속품 창대비를 연구개발하고 계획생산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품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 무어든 유물 창조함으로써 천생선의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한 이곳 로동자들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들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발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두해전 유언장대기 연구개발할 때 대한 과업을 받아안은 평양기료품공장 지체된 로성국동무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 나라에서 유언장대기 기 처음 생산된 때로부터 몇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창대기들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던것이다. 방직설비에 쓰이는 기료품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주임으로서 자기의 수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어 그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에게는 문득 《인심드높이 기리라!》의 구절이 떠올랐다.

...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에 지척 남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 ...

다음날 로성국동무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은 나라 방직공장에 걸 좋은 유언장대기들이 늘어나 창대기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수입장대기를 갖춘 유언장대기기를 어떻게 우리의것이 라고 할수 있겠는가. 승리는 타산이 아니라 각오에 달려있다. 절절하게 흘린 지체된 목소리는 종업원들에게 방직공업의 큰 몫을 담당하는 로성국동무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였으며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할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면도 공장에 맞는 양양된 종업원들의 열의에 맞게 유언장대기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짜고들었다.

높은 급의 정밀도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유언장대기를 짧은 기간에 연구개발하겠다는 이상한 각오와 높은 신념을 담보로 하였다.

우선 창대기의 제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생산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선차적인 문제나 되었다.

《우리는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도 완벽한 조립사업으로 설비들의 조립 및 부분품제작 등을 높은 수준에 도달시켰다.》

백 두산 설계원이었던 평양의 명도업적이 있었을 때는 명도의 일러를 더욱 빛내이려는 이들의 그들은 각오와 열정을 드려 유언장대기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는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기적을 날게 하였다.

만약 이들이 단련없이 주저하며 위에서 유언장대기를 해결해 주기를 얹어 기다리다면 하였다면 이러한 성공은 아직도 아득한 일로 남아있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독자의 편지

유능한 의료진과의 협의를 의뢰하며 치료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가축들은 온몸을 놓고 눈물만 흘리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대 동공구적 청부종합전소 소의 총괄국선생님은 어떻게 하나 저를 소생시켜보려고

한 집 안 식솔

자기의 피부 살을 바쳐 환자들 소생시켜주는것을 영예로 간직하는 우리의 보건일군들만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었습니디. 그의 뜨거운 정성속에 저는 인차 의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의식을 차리였을 때에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각별히 원심을 썼으며 맛있는 영양식품들과 보약들을 한 가득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디.

정말이지 저를 바친 그의 헌신의 날과 날들을 어떻게 한 두마디의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특색있게 진행되는 명절봉사준비

수도시민들이 양력설을 즐겁게 보내도록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인민봉사총국아래 규양봉사부서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어머니날의 사랑이 수도시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명절봉사준비를 힘있게 갖추어 주었다.

규양봉사부서에서는 갖가지 부장식을 완성하고 내부와 외부를 보다 환하게 꾸리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으며 음식물 평화와 시식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양력설날 수도의 규양봉사부서에서는 지성다해 준비한 평교구기미를 높은 국수와 함께 명절을 비롯한 각종 명절음식들로 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게 된다.

국 아래 규양봉사망들에서

육류관, 청류관, 평양면옥, 창평봉사관리국아래 식당들을 비롯한 수도의 20여개 식당들에서 평교구기미를 봉사하게 되며 로고기전선물, 경흥관, 동천호 식당을 비롯한 10여개 식당에서는 노루불고기봉사를 하게 된다.

양력설명절에 특색있는 음식봉사는 육류관 로리전선물에서 양력설명절에 특색있는 음식봉사를 하게 되며 창평봉사관리국 명국집, 로고기전선물당을 비롯한 여러 식당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음식인 명국을 봉사하게 된다.

또한 청류관, 송산식당, 평양송어국집, 창평봉사관리국 새날메기탕집 등 시안의 여러 식당들에서는 메기탕과 함께 메기도 맛있게, 메기튀김과 함께 메기탕을 맛있게, 메기튀김과 함께 메기탕을 맛있게, 메기튀김과 함께 메기탕을 맛있게



3중3대혁명붉은기대위의 긍지를 안고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간다고 하였고. -평양수산물백화점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만든 10여개의 메기튀김을 비롯한 갖가지 특색있는 음식봉사준비를 끝내고 손님들을 기다리고있다. -민수교향양로점에서는 햄버거, 호프도그와 대동강맥주를 비롯한 여러가지 청향음식들을 다채롭게 진행하게 된다. -본사기자 오은별

